

# 한국 현대소설 분석 방법론 시론

##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 승 옥\* · 허 명 숙\*\*

### 목 차

- I. 서론
- Ⅰ. 본론
  - 1. 신화비평적 접근
  - 2. 소설사회학적 접근
  - 3. 구조주의적 접근
  - 4. 수용미학적 접근
- Ⅱ. 결론

## I. 서론

소설이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대중매체의 변질과 그 저질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설이 지니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현대소설이 탄생한 것부터가 고독한 영혼이 안주할 곳이 없어진 비극적 상황에 기인된 것임을 상기할 때<sup>1)</sup> 소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소설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은 불확정의 시대에 소설이 해야 할 역할은 더욱 막중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이러한 시간의 무자비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그것을 찾지 못해 방황 하고 있는 고독한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 人文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 崇實大 學校 講師

1)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참조.

현대인들은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란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sup>2)</sup> 시간은 귀중한 것이며,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시간 속에서 현대인들이 참다운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얻은 재화가 결국에는 헛된 욕망만을 충족시키는 것<sup>3)</sup>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에 종속되어 무자비하게 끌려가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 재화가 주는 엄청난 힘과 그의 댓가로 얻어지는 풍족한 삶에 안주하는 인간들까지도 끝없는 욕망과 그의 채울 수 없는 심연의 무시무시한 깊이에 자기도 모르게 겁을 먹게 되었다. 물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허위라는 것은 조금만 그것과 거리를 두고 관찰하여 보아도 금시 파악되는 진실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소설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소설의 진정한 방향일까?

이러한 물음 앞에 섰을 때, 동일성의 문제는 주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인의 지향점은 자아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이 정체성 탐색의 과정이 소설에서 쫓겨나게 펼쳐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곧 소설의 실체이며, 소설 이론의 본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중에는 미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소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소설을 다 읽어낼 수 없게 되었다. 하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참다운 소설을 가려낼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성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소설론을 정립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 A. A. 멘딜로우, 『시간과 소설』,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20-30쪽.

3)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77, 참조.

## II. 본론

### 1. 신화비평적 접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나무는 규칙적으로 낙엽을 떨어뜨리며, 얼음은 봄이 오면 녹는다. 이런 현상을 보면 세상은 변화의 연속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 아이일 때 본 그 사람과 동일인이고 작년에 낙엽을 떨어뜨린 나무가 지금 다시 잎을 드리운 나무와 동일 나무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또한 인간도 무상하게 변하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막연하게나마 꿈꾸며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일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동일성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 곧 참존재의 탐구라 하겠다.<sup>4)</sup>

소설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참자아의 탐구는 곧 동일성 탐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개개의 작품에 변형이 되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는 개별작품의 작품성에 달린 문제일 뿐, 그 본질상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개별 작품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는 작업이다. 이때의 법칙은 최대공약수적이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소설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서양의 현대소설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서는 우리의 설화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우리의 설화가 오늘의 우리 소설 분석에 의미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설이론이나 문학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될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4) 한승옥, 『이광수연구』, 선일문화사, 1984, 49-50쪽. (동일성의 개념에 대한 천착은 이 책 제3절 '동일성' 항목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이때 중심 주제는 '동일성' 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은 설화는 <유리왕 이야기>이다. 유리왕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유리가 어려서부터 기이한 기질이 있었다. 소년 때에 참새 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한 부인이 물둥이를 이고 가는 것을 쏘아서 뚫었다. 그 여자가 노하여 욕하기를,

"아비도 없는 자식이 내 물둥이를 쏘아 뚫었다." 하였다. 유리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진흙 탄환으로 쏘아서 동이 구멍을 막아 전과 같이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유리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난삼아 말하기를,

"너는 일정한 아버지가 없다." 하였다. 유리가 울며,

"사람이 일정한 아버지가 없으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을 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리며,

"아까 한 말은 장난삼아 한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부여의 신하가 되는 것을 원망하다가 도망하여 남쪽 땅에 가서 국가를 창건하였단다. 네가 가보겠느냐?" 하였다. 유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갈 때 말을 남기기를 '내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 얻는 자는 내 자식이다.' 하였다." 했다.

유리가 산골짜기에 가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지쳐 돌아왔다. 그때 유리가 당(堂)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둥은 돌 위의 소나무 이고 나무 모양이 일곱 모서리였다. 유리가 스스로 해독하기를,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라는 것은 일곱 모서리이고 돌 위 소나무라는 것은 기둥이다." 하고 일어나 가보니 기둥 위에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전한(前漢) 홍가(鴻嘉) 4년 여름 4월에

고구려(高句麗)로 달아나서 칼 한 조각을 왕께 받들어 올렸다.왕이 가지고 있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어 합하니 피가 나면서 이어져 한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

“네가 실로 내 자식이라면 무슨 신성(神聖)함이 있느냐?”하니,우리가 즉시 몸을 날리어 공중에 솟구쳐 창구멍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sup>5)</sup>

위의 유리왕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성을 지닌 서사시다.서사시는 그것이 개인의 운명이 아닌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총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sup>6)</sup> 여기에는 비극적 세계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sup>7)</sup>

위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과정과 그의 성공담이다.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를 찾아 아들로 인정을 받고,자신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은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탐색담>의 유형에 속한다.무엇인가를 찾아 떠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고,드디어 성공했을 때 모든 서사적 과정은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담은 서사시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대에는 이미 총체성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비록 현대가 총체성을 상실한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사시 시대의 완결성과 총체성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 그것이 비록 무의식일지라도 우리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충족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때를 꿈꾸게 된다.만일 이러한 꿈이 종식된다면,인류는 그 즉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소설이 지향하는 것도 이러한 꿈의 실현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유리왕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우리가 꿈 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자족적 세계를 탐색해 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뿐더러,지금의 소설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80

6)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85쪽.

7) 루시앙 골드만, 『숨은 신』, 송기형, 정과리 역, 연구사, 1986, 참조

유리왕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야기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 있다.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으며, 갈등이 상존하고, 금기와 운명의 이야기가 배어 있고, 탐색을 통한 성취가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유리는 어려서부터 기이한 기질을 타고난다. 그것은 서사시의 주인공이 지니는 신이성(神異性)을 의미한다. 그가 지니는 신이성은 참새 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의 탁월한 활솜씨가 그것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탁월한 신통력이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할 때 신성은 모독된다. 그가 지나가는 부인의 물동이를 쓴 것은 이러한 타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락의 과정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 부인이 유리를 모욕한 것은 현실이다.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기에 그런 버릇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부인은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세속의 윤리이다. 그가 이 모욕에 그대로 굴복하였다면 유리는 평범한 인물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 물동이에 난 구멍을 진흙으로 다시 막았다. 그의 신이성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상징한다.

이 사건은 또한 그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망각하였거나 아직 어려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 순간 유리는 비로소 그의 참자아에 눈 뜰 수 있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유리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머니가 유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난삼아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어머니로서는 자신의 금기를 철저히 지킨 것이 된다. 만일 일찍이 그의 아버지가 현실을 반역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운 사실이 알려졌다면 유리는 생존해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유리는 자신의 근본에 치욕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이것은 이미 그가 자아 각성의 단계에 와 있으며, 성인으로 발돋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여, 그의 아버지가 천제의 아들이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는 것을 알려 준 것은 유리가 이제 그의 근원을 찾아 떠나도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색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어린아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그에는 반드시 신표

가 따라야 하고,신표를 통해 그의 존재가 확인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이 계속 상존하게 된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탐색담>에서 가장 인간적이며,현대소설에서 동일성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적 요소가 된다.그것은 수수께끼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현대소설에서는 그 수수께끼마저도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그러나 서사시에서는 이러한 수수께끼가 명확할 뿐아니라,또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풀리게 되어 있다. 그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둔' 신표를 찾으려 산골짜기를 헤매는 것은 그의 존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시련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고통을 당할 때,거기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그것이 바로 堂 기둥에서 울려나오는 슬픈 소리이다.현대소설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우리가 도움을 통해 신표를 찾아 낸 것은 그것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이것은 공동 운명체의 소망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 그는 칼 한조각의 신표를 얻게 되고 그의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를 향하여 떠나는 것이다.

고구려에 도달하여 왕에게 신표를 바쳤을 때,그 신표만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신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의 능력이 신성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신표인 칼이 맞추어져 피를 흘리며 하나로 되었을 때,뼈대인 칼이 현실적인 살로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그 이상의 신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서사시이기 때문이다.우리가 즉시 몸을 날리어 공중에 솟구쳐 창구멍으로 새어드는 햇빛을 막았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하늘을 관장하는 천제의 속성을 타고났다는 의미기도 하다.이를 통해 그는 현실적인 혈통의 계승 뿐 아니라 신성까지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유리왕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것이 현대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완벽하게 재생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 소설에서는 비극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뿐이다.이미 현대는 서사시의 완결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소설이라해도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삶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은 이러한 탐색의 지난한 과정을 탐구해 가는 과정이 사실적으로 드러난 형태이다. 현대소설에서는 유리왕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설화에서 취해야 할 것은 <탐색담>의 원형이다. 탐색담 원형 중에서도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 주요 모티프가 되는 <심부담(尋父譚)>이다.

원형(archetype)이란 말이 신화비평가들이 즐겨 쓰는 용어임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융(Jung)에 따르면,原型은 결코 쓸모없는 고대의 잔존물이거나 유물이 아니다. 원형은 살아 있는 실체이며, 본능의 활동 영역에 속하는 현실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sup>8)</sup> 융에 있어서 결작이란 그 자료를 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 모으고 의식적, 문화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혼용시킴으로써 성공을 거둔 작품을 말한다.<sup>9)</sup>

신화비평적 입장에서 볼 때,문학은 무 가지 현세적 차원에 동시에 존재한다.문학은 어떤 특정 기간에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며,동시에 원형적 인물,이미지,상징,장면,구성 등에 영원히 반복 재현됨으로써 역사적 시간밖에 하나의 연속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sup>10)</sup>

현대소설에서 <심부담> 원형을 찾는 것은 신화적 원형이 현대소설에 어떻게 투영되었나를 발견하는 작업에 해당한다.이 원형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작업에 다름아니다.주종연이 [메밀꽃 필 무렵]을 심부담 원형으로 분석한 것이나,<sup>11)</sup> 서석준이 건국신화에서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찾기>나 <父喪失>이 주요한 모티브로 등장함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천착을 보인 것<sup>12)</sup>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원형찾기 작업이 문학의 개별성이나 독창성을 무시한 채 근원신화로 문학을 환원시켜 문학을 도식화하거나 단순화시킬 위험성이 항시 내포됨은 우리가 경계해야할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위험 요소만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면, 신화비평은 현대소설을 보다 분명히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특히

8) 그렉스타인, 『신화비평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신화』, 김병욱 외 편역, 대방출판사, 1983, 31쪽.

9) 위의 책, 31쪽

10) 노드롭 프라이, 『문학과 신화』, 앞의 책, 23쪽.

11) 주종연, ([메밀꽃 필 무렵]과 원형적 패턴),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 연구』, 민음사, 1984, 264-282쪽.

12) 서석준, 『현대소설의 아버지상』, 시학사, 1992.



인간성 탐구라는 문학 본령에 입각해 볼 때, 더욱 그것이 가치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소설 사회학적 접근

소설사회학은 그 범위가 하도 광범위하여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루카치와 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동일성 문제를 탐구하려 한다.

루카치는 “호머의 서사시가 선형적 좌표에 힘입어 총체성이 지배하던 형이상학적 고향 속에서 인간의 영혼이 아무런 문제없이 안주하고 있던 그리스의 역사철학적 산물이라면, 현대의 서사 형식인 소설은 이미 선형적 좌표와 형이상학적 고향을 상실하고 서사시적 총체성의 세계를 다시 찾으려는 고독한 현대인의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철학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소설은 현대의 문제적 개인(주인공)이 본래의 정신적 고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서 동경과 모험에 가득 찬 자기 인식에로의 여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형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3)</sup>

루카치가 말하는 선형적 좌표에 힘입어 총체성이 지배하던 형이상학적 고향은 어떤 것일까? 루카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sup>14)</sup>

자아와 세계가 대립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조응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

13) 게오르크 루카치, 앞의 책, 역자 후기. 213쪽

14) 위의 책, 29쪽.

던 시대, 이 시대가 서사시의 세계이며, 루카치가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당위로서 설정한 선형적 고향에 해당한다. 이 시대에는 세계와 자아, 천공(天空)의 불빛과 내면이 불꽃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서로에 대해 결코 낯설어지는 법<sup>15)</sup>이 없었던 시대였다. 모든 것이 총체성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 이 시대의 문학 양식은 서사시였으며, 이 양식은 인간이 지닐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어떤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러한 서사시 시대의 총체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선형적 정향점도 이에 맞게 변해버렸다. 선형적 정향점이 변함에 따라 예술의 여러 형식도 역사철학적 변증법에 종속하게 되었다.<sup>16)</sup> 특히 소설의 형식은 다른 형식들과 달리 '선형적 고향 상실성'이 표현된 장르<sup>17)</sup>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소설이 그 지향점까지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서사시와 같이 그 자체로 선형적 고향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설이 그 지향점으로서의 선형적 고향에 대한 향수나 자기 정체성에의 열망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작가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철학적 상황으로 인해 소설에 삶의 외연적 총체성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소설이 총체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 근본 속성에 있어서 변함이 생긴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사시와 소설은 근본에 있어 동일한 서사형식이 되는 것이다. 단지 서사시가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라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점<sup>18)</sup>에서 차이가 난다 하겠다.

하기에 소설은 서사시적 상황을 회복하고 그 때의 총체성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위험에 찬 모험을 계속하여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 문제적 개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문제적 주인공은 언제나 총체성을 향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인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목표나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직접적으로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15) 위의 책, 29쪽.

16) 위의 책, 46쪽.

17) 위의 책, 47쪽.

18) 위의 책, 76쪽.

의미한다. 19)

어떠한 목표도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영혼이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행위나 토대나 활동무대로서의 인간들 사이에서 그 어떤 초개인적이고 이상적이며 당위적인 필연성의 명백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20) 이러한 세계는 관습의 세계이며, 루카치가 명명한 대로 제2의 자연에 해당한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인 제2의 자연은 서정적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내면을 일깨우지 못한다. 경직되고 낯선 의미의 복합체, 즉 이미 죽어버린 내면성을 모아 놓은 시체실이나 다름없다. 21)

이러한 이유로 제2의 자연에 대하여 인간은 낯설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환경이 인간에게는 이제 그들이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 버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22)

이 지점에서 문제적 개인의 고뇌가 시작되는 것이다. 서사에서는 이러한 고뇌가 필요없었다. 그곳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자족적인 화해의 관계로 서로 조응할 수 있었다. 하기에 서사시의 세계는 어린아이의 형식인 것이다. 이에 반해 소설의 세계는 소우주와 대우주, 꿈 세계와 자아가 분열되고, 현실은 안주할 수 없는 허위의 세계이기 때문에 소설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선행적 고향을 찾아 끊임없는 모험을 해야하고, 고난에 찬 여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루카치가 소설의 형식을 '성숙한 남성의 형식' 23) 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소설의 진행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 24) 의 과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소설의 진행은 개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질적이었던, 단순히 존재만 하고 있던 현실 속에 침울하게 간혀 있던 문제적 주인공이 자기인식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인식에 도달하여 가까스로 찾은 이상이 결코 그의 완전한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존재와 당위와의 분열이 어느 정도 지양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

19) 위의 책, 77쪽.

20) 위의 책, 79쪽.

21) 위의 책, 82쪽.

22) 위의 책, 82쪽.

23) 위의 책, 92쪽.

24) 위의 책, 103쪽.

25) 위의 책, 103쪽.

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존재와 당위의 간격이 최고도로 좁혀짐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에 의해 한 인간의 존재가 가장 깊이있게 또 집중적으로 비추어 질 따름이다.<sup>25)</sup>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소설은 신에 의해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라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이 남성의 깊은 통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이긴 하지만 신에 의해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설은 내면성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sup>26)</sup>이라 할 수 있다. 곧 소설의 내용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이야기이자,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디어 내면서 자신의 본질, 곧 자신의 동일성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이야기인 것이다.

신에 의해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소설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 말 속에는 인간은 영원히 신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투기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이 은연중에 암시되는 것이라 하겠다. 골드만이 이렇게 신을 향한 인간의 절규를 비극적이라 정의했을 때, 루카치의 미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드만이 루카치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으며, 이것이 비극적 사고의 근본적 특징<sup>27)</sup>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시에 소설이 포용해야 할 비극성을 완곡하게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진실한 것은 <숨은 신>일 수밖에 없음을 파스칼이 인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골드만은 사회의 구조가 소설 구조를 결정한다는 발생구조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론가이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근본 미학의 특징은 숨은 신을 찾아 나가는 비극적 인간의 역정이 소설의 내재적 형식을 이룬다는 점에서 역시 루카치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 하겠다.

만일 골드만이 이야기하는 숨은 신이 현실에 부재하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소설적 형식의 본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관계없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드만이 말하는 숨은 신은 현존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신이지, 때때로 현존하고 때때로 부재하는 신은 아닌 것이다. 숨은 신은

26 위의 책, 115쪽.

27) 루시앙 골드만, 앞의 책, 48쪽.

28) 위의 책, 49쪽.

언제나 현존하며 언제나 부재하는 신인 것이다.<sup>28)</sup> 특히 폴드만이 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스칼의 세계관에 있어 숨은 신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 숨은 신의 존재는 모든 경험적 감각적 현존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영원한 현존, 즉 유일한 본질적인 현존이다. 하기에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신에 도달하기 위해 모험을 계속하여야 하며, 이승의 삶에서는 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이런 점에서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순 구조가 비극적 세계관의 중심 사상인 것이다.<sup>29)</sup>

인간은 현실에서 비록 타락된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에 찬 역정을 계속할 수 있다. 루카치가 말하는 소설의 문제적 주인공의 고난에 찬 역정은 고독한 영혼이 숨은 신을 찾아 나서는 탐색의 도정에 다름 아니며, 본고에서 다루는 동일성 확인의 고난에 찬 역정에 다름아닌 것이다.

문제적 주인공에게는 이 세계가 너무나 불완전하게 느껴진다. 거기에 자신을 바치기에는, 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세계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또 너무나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가 시도할 수 있고 또 시도해야 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의 삶에까지, 비극적 의식을 지닌 문제적 개인은 <긍정이며 동시에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sup>30)</sup>

이 비극은 그가 신에 도달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쉽게 성취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조를 닮은 소설의 형식도 화해롭고 자족적인 열락의 상태를 쉽게 창출할 수 없다. 문제적 주인공은 끊임없이 숨은 신을 향해 힘든 역정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소설의 내재적 형식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숨은 신>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문제적 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극적인 모습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동일성 탐구를 통한 인간의 참 존재의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설이론에서 동일성 탐구가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함은 이를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하겠다.

29) 위의 책, 50쪽.

30) 위의 책, 72쪽.

### 3. 구조주의적 접근

노드롭 프라이는 문학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자아와 세계와의 동일성의 발견에 기초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여 문학의 언어는 인간의 정신과 바깥 세계 사이의 동일성을 제시하기 위해 직유와 은유 같은 수사법을 사용하므로, 우리는 문학의 언어가 연상적이며, 상상력은 주로 동일성의 발견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오늘의 인간세계는 상상력의 제한을 전적으로 받고 있어 우리의 의식전체가 바깥세계와의 근원적인 동일성 상실감을 갖게 된다고 하여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모와 동일성 상실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동일성은 객관세계의 상실과 자아상실이라는 두가지 위기감에서 야기되며, 전자는 자아와 세계와의 일체감으로서의 동일성 문제로 '공시적 동일성'으로 지향되며, 후자는 자아의 재발견이라는 개인적 동일성의 문제로, '통시적 동일성'으로 지향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시적 동일성은 주체로서의 자아가 타인들 또는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대립,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나의 측면이고, 통시적 동일성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의 측면이라 하겠다. 이 둘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자아와 세계가 교접해 있는 과정은 개인적 동일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동일성은 공시적인 동시에 통시적 연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프라이의 견해는 기호학에서의 엘름슬레브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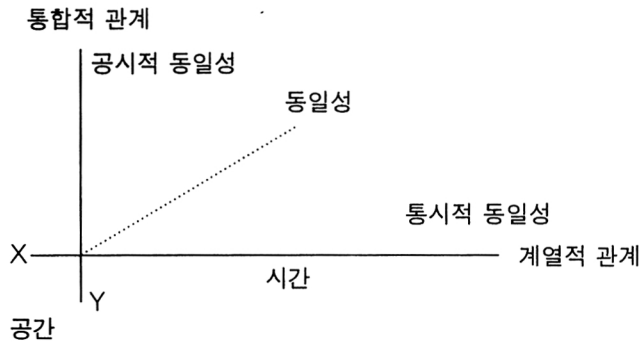
문학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언어는 일상언어와는 달리 무수한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작품 즉 텍스트는 기호들의 결합체이다. 문예 일반에 걸친 넓은 의미에서 기호는 인간의 의사 소통에 필요한 전언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텍스트가 기호들의 결합체라면 그것은 두 개 이상의 기호들과 그것들이 결합되는 규칙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분석 가능한 현상이 된다. 엘름슬레브에 따르면 텍스트는 잠재된 체계가 표출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계는 무엇인가? 소쉬르는 체계를 한 언어가 구성되는 내재적 법칙

31) 김남권, 『정지용 시에 나타난 동일성 지향의 연구』, 강릉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참조.

으로 간주했고, 푸코는 관련된 사물과는 무관하게 기호들이 서로 연관되고 변형되는 관계들의 집합을 체계라 일컬었다. 소쉬르의 체계라는 용어는 프라그 학파에서는 구조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체계를 이루는 언어요소들(기호들)은 두가지의 상이한 유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각 요소(기호)가 선적인 시간축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연속적으로 결합되는 관계다. 이때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인접적이다. 반면에 후자는 선택적 관계라고도 지칭되는데, 말해지는 연속선상의 어떤 점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화자(혹은 발신자)의 선택에 따라 문맥에 나타나는 요소와 나타나지 않는 요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다.<sup>32)</sup>

따라서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는 통시적 동일성과 공시적 동일성과 조응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을 구성하는 배경, 인물, 사건들은 계열적 관계를 이루며, 주요 플롯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의식의 변모를 가져오는 통합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두 관계를 축으로 통합된 텍스트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작가의 것이든 가공된 허구의 인물의 것이든 간에,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통합적 관계를 인물의 시간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플롯구조와 대비시켜 분석하면 통시적 동일성이 추출될 것이고, 계열적 관계를 작품의 공간과 인물의 자의식과 대비시켜 보면 공시적 동일성이 추출될 것이다. 이 둘을 토대로 인물의 동일성의 변모와 회복을 밝혀 낸다면 보다 효율적인 소설 분석이 수행될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공감을 전해주는 그 기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위와

32)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1992. 15-16쪽.

같다.

X 축의 대상들은 시간을 기저로 작품 내에서 일정한 계열적 관계를 갖고 그것이 인물 혹은 서술자의 통시적 동일성과 연관되어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Y축의 대상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치에 의한 선택적, 통합적 관계를 갖고 인물의 통시적 동일성을 드러내며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하지만 이 양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 '동일성'이라는 통합된 주체를 향해 결속되어 하나의 텍스트를 생성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X 축의 통시적 동일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항에서 제기한 <탐색담>을 그 중심 주제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서도 이미 암시된 것이지만, 서사문학은 서사 그 자체가 탐색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잃어버린 것, 더 나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이 서사의 주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사의 진행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탐색과 맞먹게 된다.

탐색담의 문학적 전통은 상당히 길다. 신화, 전설, 민담으로부터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도 탐색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찾음'을 구조적인 축으로 하는 탐색담의 연구는 하나의 소재사 연구도 될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는 적어도 하나의 대립상황이 내재하게 마련이다. +로 표현될 긍정적인 상황과 -로 표현될 부정적인 상황이 그것이다. 이때 -를 중화시켜 +로 나아가는 과정이 곧 탐색의 과정이자 서사의 진행방향이 되는 것이다.<sup>33)</sup>

이럴 경우 탐색의 대상을 동일성으로 상정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물 의식의 변모양상을 X 축인 시간의식을 통해 분석하고, Y 축에 해당하는 객관세계와 동일성의 관계 양상을 공간적 개념을 통해 분석하면 보다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한 연후에 이 둘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통합되면, 동일성의 실체는 밝혀질 것이다.

이때 분석 대상이 되는 작품은 '성장소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루 아는 사실이지만, 이니시에이션스토리는 인류학의 Initiation(통과하다)에 근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원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들이란 유년기나 청년기에서 성인이 되고 성인사회에서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하

33) 박진석, 『탐색담의 유형과 그 구조적 해석』,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1988.



고 있는데, 반 제네프는 통과이레에 구체적으로 출생이레,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을 포함시켰다. 마르쿠스는 '젊은 주인공이 그 세계나 자신에 대한 지식의 의미있는 변화, 또는 성격의 변화, 또는 양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며 이 변화는 그들에게 성인의 세계로 유도해 나가야 하고, 그것에는 어떤 제전의 형태를 포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변화가 항구적인 효과를 가지려는 것이라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여, 인류학에서 탈피, 작품 자체의 의미 규칙, 젊은 주인공, 성인세계로의 유도, 영속적인 효과 등을 강조하였다. 곧 성장소설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의 주인공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의식의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아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꾀하는 등 성숙에 이르거나 사회나 집단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소설'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4)</sup>

하지만 성장소설이라고 해서 단순한 청소년이 어떤 동기에 의해 시련을 겪고 성인사회로 입문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순화될 위험성이 있다. 실상 그동안 우리 소설 연구에서 성장소설 분석은 황순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소나기』, 『별』, 『닭』 등 일련의 소설은 모두 소년 주인공이고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 성인사회로 입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장하여 잃어버린 동일성을 획득하는 혹은 진정한 자아의 동일성을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들을 분석하는 데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수용미학적 접근

수용미학적 접근은 여러 방향에서 다각도의 천착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주로 인물을 통해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과 그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특히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미지의 통합을 중심 과제로 고찰하려 한다.

소설 속의 인물은 처음부터 텍스트 내에서 완전한 개체로 드러나지 않는다. 인물은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에 비유되듯<sup>35)</sup> 그의 외모, 버릇, 성장과정

34) 안영찬,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니시에이션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12쪽.

35)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4, 84쪽.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 독자에게 포착되었던 인상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독자의 눈에 비치는 그의 이미지에는 불연속성이 생긴다. 그러나 작중인물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로 보아야 하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작중인물은 독자를 의외의 경악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가 일단 충격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작중인물의 이러 저러한 행동이 완전히 이해 가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sup>36)</sup>

소설의 인물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독자의 통일적 인상 속에 수렴된다는 위의 언급은 인물의 불확정성은 바로 독자의 재구성을 기다리는 상상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물의 불확정성은 인물을 불완전한 존재 혹은 기능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있는 존재'를 지향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괴테는... 한 인간의 생애를 문학적으로 구성하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차원이 개입됨을 시사한다. 즉 의미있는 연상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을 주관적 패턴으로 제시하는 것과 입증할 수 있는 전기적, 역사적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구조가 그것이다. (중략) 이 두 차원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상호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실제적이든 허구적이든 달리 인간의 일생을 구성하는 방법은 없다. 인간을 소위 '문학적으로 재구성' 한다고 할 때 객관적, 역사적 자료에 부가해서 의식의 흐름과 기억에 나타나는 의미있는 연상의 패턴이 개성, 즉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항상 사용되어 왔다.<sup>37)</sup>

괴테가 말한 한 인간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함은 소설의 행동 주체인 인물을 형성

36) 로비 매콜리·조오지 래닝, 『인물구성』,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3, 255쪽.

37) 한스 마이어호프,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44-45쪽.

화하는 작업과 상통한다. 전기적·역사적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이다. 소설 속의 인물의 생은 소설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소설가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예술 형태에는 없는 친밀성이 작가 자신과 제재 사이에 있다.<sup>38)</sup> 소설가는 자기 자신을 대충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여기에 이름과 성을 붙이고, 그럴듯한 몸짓을 시키고,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말을 시키고, 전후가 맞는 행동을 하게 한다. 이 단어들이 작중인물이다.<sup>39)</sup> 괴테와 포스터의 견해를 통해 작중인물의 생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지만 객관적 사실의 변형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적 현실인 객관적 사실을 변형하는 힘은 바로 상상과 기억에 의한 것임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소설의 인물은 소설가의 형상력을 입으면서 인간에 있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외모, 습성 등) 뿐 아니라 그의 내면생활까지도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설의 인물을 존재로 인식함은 개성적 성격을 지닌 '고유명사'로 이름붙이는 독서에 해당한다.<sup>40)</sup> 이러한 독서는 텍스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작중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암시를 재구성(결합)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말해 독자가 작중인물을 재구성하는 일은 텍스트 내의 다양한 소어를 동일성으로 파악하는 작업인 것이다. 작중인물의 텍스트 내의 불확정성은 대개 두가지 차원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데 하나는 시간의 불연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이다. 결국 인물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소설 인물과 시간성의 문제와 만나게 되는 셈이다. 문학과 시간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일종의 존재론적 해석, 현상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41)</sup>

문학에서 인간은 지각과 기억의 저장고로서 묘사될 뿐만 아니라 더욱 두드러지게 활동적이고 자동조절적인 기능의 중심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서로 다른 여러 경험 속에서도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인물의 경험임을 확신시킬 수 있는 구조와 통일의 성질이 보인다는 사실이 그 인물 자신이

38) E. M. 포스터,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4. 51쪽.

39) 위의 책, 52-53쪽.

40) 설로미스 리몬-케닌, 앞의 책, 59-60쪽, 참조

41) 이승훈, 『문학과 시간』, 이우출판사, 1983, 13쪽.

42) 한스 마이어호프, 『문학과 시간현상학』, 삼영사, 1987, 54-55쪽.

나 그 작품의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속성을 자아의 본질적 성분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은 언제나 문학에 있어서 인물 묘사의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시간과 자아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가장 명백해진다.<sup>43)</sup>

자아 내부의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은 소설 인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일적으로 종합하는 문맥을 제공한다. 한스 마이어 호프는 시간과 자아의 상호관계를 '표면적 현재'라는 시간적 흐름과 기억구조(과거가 구성하는 관계)의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sup>43)</sup> '마음에 포착한 현재'는 하나의 의미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표현된 어느 하루, 또는 어느 순간 순간 등 시간의 파편은 연상수법의 효과에 의해 또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틀 속에서 작용하는 이미지의 논리에 의해서 전달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식 속에 부유하는 무질서한 파편들을 결합하여 어떤 종류의 통일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 무질서한 파편들이 오로지 동일한 자아의 의식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순간적 의식의 흐름에 몰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아의 이 두 통일체들이 과거에 관하여 기능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가지는 기억이다. 카시리에 의하면 기억은 인지와 동일성 확인의 과정으로서 내화(內化)와 집약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생활의 모든 요소의 상호삼투를 포함한다.<sup>44)</sup> 상징적 기억은 그것에 의하여 인간이 오직 그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상상이 참된 회상의 없지 못할 요소가 된다.<sup>45)</sup> 성격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심적반응 및 연상의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원칙을 현재를 넘어서 개인의 과거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인물묘사가 언제나 이것을 나타내 보인다. 최초와 최후 사이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억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이때의 기억은 창조적 상상력을 의미한다. 예술작품을 구성한다는 것은 경험세계와 자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창조적 회상작용은 예술창조의 과정이 되며, 문학작품

43) 한스 마이어호프, 위의 책, 55-80 쪽.

44) 에른스트 카시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전망사, 1983, 75-77쪽 참조.

45) 위의 책, 77쪽.

46) 로버트 마그리올라, 『현상학과 문학』,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6, 21쪽.

은 경험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자아를 환기시킨다. 제네바 학파는 문학작품의 심층자아는 작가 자신의 심층자아, 더 정확히 말해서 시적 언어 쪽으로 건너온 부분으로서 작자의 심층자아로 간주한다.<sup>46)</sup> 문학작품의 심층자아는 소설의 경우 인물의 동일성과 상통한다. 이는 작품 속에 언어화 된 작자의 지향성이며, 이 지향성은 작자와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현상은 '어떤 내용을 지시하고,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 현상, 즉 대상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 현상과 구별된다.<sup>47)</sup> 인간은 보는 어떤 것(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에 어떤 감정이나 인식을 갖는다. 사랑도 미움도 누군가에 대한 혹은 무엇을 향한 사랑과 미움이다. 생각 역시 어떤 개념이나 명제에 대한 생각이다.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이 우리로부터 독립해서 당연하게 실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나마 이 사물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이 양자간에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된다. 객관으로서의 사물세계와 주관으로서의 우리 사이에는 이미 상관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사물세계는 나의 의식에 '대(對)한 상(象)'으로서 대상세계이다.<sup>48)</sup>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식으로서 결코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대상을 지니는 의식일 뿐이다. 의식의 지향성<sup>49)</sup>이라는 훗설의 개념은 의식이 주체적, 객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님을 뜻하는 것이다. 즉 무엇을 담는 용기에 비유되는 의식의 객체성과 객체를 항상 초월하려는 주관성을 동시에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은 진실로 존재하기 위하여 물질 내지 신체를 필요로 하며, 인간의 실존은 세계에 대한 의미의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아를 진실로 표현하고 분명히

47) 먼로 C. 비어슬리, 『미학사』, 이성훈, 안원현 역, 이론과 실천, 1988, 435쪽.

48) 박이문 외, 『현상학』, 고려원, 1992, 19-20쪽.

49) 훗설에게 있어서 의식이란 그 안에서 주관이 지향하고(자신을 대상 쪽으로 향하고), 대상이 지향되는(대상이 이 행위를 초월하기는 하면서도, 주관의 지향행위의 표적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위이다. 지향하는 주관과 지향되는 대상은 상호관련이 되어 있다. 로버트 마그리올라, 앞의 책, 13쪽.

말하기 위해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때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질료적 특성은 의미화의 모태가 된다. 주, 객관의 양극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언어를 통해서만 명료한 형상을 알게 된다. 언어를 통해 존재를 사색하고 이야기하는 문학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의미부여 기능의 침전물로서 접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sup>50)</sup>

바슐라르는 상상력을 자아의 세계에 대한 의미부여, 자아와 세계 사이를 조화하는 중심작용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합리적 정신은 언제나 대상에 대한 최초의 인상, 감응적인 애착, 게으른 몽상으로 흐려지고 인식의 장애가 되는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한 감성적 반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했다.<sup>51)</sup>

사람들은 언제나 상상력이 이미지를 그대로 기억에 떠오르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한데 그것은 차라리 지각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를 변형케 하는 기능인 것이다. 그것은 특히 최초의 이미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기능인 것이다.<sup>52)</sup>

이미지는 기억과 의식의 지향성이 상호연관적으로 내려앉은 형상적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시간에 대한 외면적 관계만을 지닌 물리적 세계를 과거와 더불어 존재하고 미래의 꿈으로 존재케 하는 인간적 세계로 바꾸어 놓는다. 문학 이미지는 언어에 의한 이미지이며, 언어에 의한 이미지는 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언어에 의한 이미지는 물리적 차원에 있어서 단순한 기호이므로, 그것과 독자의 상상력 사이의 관계는 전적으로 상상적인 면에서 이루어

50) 김진국, 『문학현상학의 이론과 실제』, 명진사, 1980, 14쪽.

51) 광광수, 『바슐라르와 상상력의 미학』, 『바슐라르연구』, 민음사, 1981, 20쪽.

52)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위의 책, 21쪽, 재인용

53) 회화적 이미지나 언어에 의한 이미지나 똑같이 그들의 울림을 위해서는 관상자와 독자의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울림은 이미지의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참여(시각적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자는 그의 상징력을 이미 물리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후자는 오직 환기작용의 돌림길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위의 책, 27-28쪽.

54) 위의 책, 41-42쪽.

진다. 오직 독자의 상상력의 소관사일 따름이다.<sup>53)</sup>

회화적 이미지는 화가의 상상력이 화폭에 갇혀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전적인 자유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법이 결코 없다. 하지만 문학 이미지는 상상력의 표출 그 자체이다.<sup>54)</sup> 이미지-기호로서 문학적 이미지는 작자와 독자의 상상력이 만나는 점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작자의 문학적 상상력은 독자의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미지와 단어의 관계는 작자의 관계나 독자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상력과 단어의 관계에 있어서, 단어가 간직하고 있는 몽상들의 기억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제각기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선택은 여러 다른 순간에 따라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로서의 이미지의 객관성은 그의 독단적인 교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반면 울림의 요인으로서의 이미지의 통주관성은 작자와 독자의 상상력을 똑같은 행동 가운데 서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sup>55)</sup>

이미지의 객관성과 통주관성은 이미지를 통한 느낌의 두 차원인데, 객관성은 표면적, 감각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의 오관을 통해 느끼는 쾌감에 해당하고 통주관성은 본질적이고, 감동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화에 이르게 하는 힘에 해당한다. 작가와 독자를 만나게 해주는 통주관성은 의식의 지향성과 관련된 존재생성의 상상력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물의 동일성과 약에는 이미지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가 이미지를 통해 작가와 통주관성으로 연결되기 위한 이미지의 분석(與價作用)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바슐라르는 문학비평가를 이미지의 현상학자라 하여, 이미지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미지의 현상학을 전개하였다.

이미지가 표상하는 대상의 감각적 성질을 결정하는 상상력의 자유, 즉 이미지를 제멋대로 상상하는 상상력의 자유는 독자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이 독자의 상상력의 자유로운 의지 때문에, 이미지가 독자의 상상력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은 결코 고정된 형상을 취하지 않는다.<sup>56)</sup> 독자의 상상력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하

55) 위의 책, 48쪽.

56) 위의 책, 77쪽.

57) 위의 책, 83쪽.

나가 아니라 일련의 이미지이며 그것은 상상력 속에서 움직임의 폭으로 결정된다. 이미지가 나타내는 대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를 얻게 된다.<sup>57)</sup> 즉 이미지의 표상적 구조가 지니는 역동적 작용으로 인해, 상상력은 어느 한 쪽은 성질, 다른 한 쪽은 대상 전체 사이의 구조를 추출해 낸다.<sup>58)</sup> 예를 들어 연못가에 서 있는 포플라 나무의 이미지는 각각 하늘로 치솟은 형태와 투명성, 서늘함이 일차적으로 느껴지는데 포플러의 상승의지 때문에 그 때까지 거기 무연히 있는 것 같던 연못은 갑자기 하강의 의지로 가득 차는 것처럼 상상된다. 이와 같이 이미지를 표상적 요소들이 이루는 구조 가운데서 고찰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구조로 환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표상적 요소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그의 기능과 이미지의 구조를 증폭하고 뚜렷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함을 뜻하는 것이다.<sup>59)</sup>

바슐라르는 이미지의 현상학적 환원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sup>60)</sup> 그 1단계가 이미지에서 그의 구조나 표상적 요소의 기능에 관계되지 않는 일체의 것은 지워버리고 이미지를 구조나 표상적인 요소의 기능과의 상관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는 이미지의 표상적 요소에서 어떤 구조와 기능을 찾아내야 하는가의 물음이 제기된다. 이미지의 생성은 그의 표상적요소의 자생적인 역동성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이 거기에 부여한 역동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작가의 상상력을 결정하는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유도해내는 방향에서 작업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2단계는 이미지의 변수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서로 맞부딪치게 하여 고유한 상황에서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워 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의 상상력의 궁극성이 파악되는 것이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은 상상력의 궁극성과 이미지의 생성의 직접적인 모습 사이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진행된다. 이것은 순차적일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다. 상호보충적이라 할 수도 있다. 이미지 현상학의 마지막 단계는 이미지 가운데 사상의 탄생을 드러내야 한다.

58) 위의 책, 87쪽.

59) 위의 책, 90쪽.

60) 위의 책, 90-106쪽 참조. 이미지의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 소개된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61) 위의 책, 101-102쪽.



이미지의 현상학이 이미지의 울림을 단순히 우리의 감동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표면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미지의 의미론 역시 단순히 이미지에 의한 우리의 존재론적인 체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체험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한 고찰로써 그 체험의 내용에 설득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sup>61)</sup>

소설 텍스트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결정하는 이미지의 상관관계는 인물과 관련된 이미지인가 혹은 작품의 어떤 상황과 관련된 이미지인가에 따라 각기 그 분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물과 관계된 이미지는 그의 추억과 현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마음에 포착된 그의 현재와 기억으로 되살아난 과거를 단절이 아닌 지속으로 경험하게 한다. 특히 꿈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통해 독자는 작중인물의 무의식과 바램까지 상상하게 된다.

소설적 상황에 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이미지는 서술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구성의 중요한 국면에 제시돼 있는데 그 소설 전체를 흐르는 분위기를 환기하면서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을 통일하는 작가의 형상력을 환기한다. 이것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일관된 호흡으로써 독자에게 감응된다.

이 두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상호연관적이다. 그러므로 서술자나 인물이 좋아하는 질료, 좋아하는 형태, 자주 나타나는 움직임 등을 포착하고 이것을 작품의 구조로 환원시키는 독서가 일차적으로 요청된다.

소설의 이미지 분석은 시의 이미지보다는 덜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 상관없는 듯한 요소들의 내밀한 관계를 소설의 내적 구조에서 찾아 관련을 맺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독자가 이미지를 느끼게 되었는가의 문맥을 만드는 작업이다. 소설의 이미지 분석은 이 비평적 문맥을 자신의 기억과 작품의 흐름에 의존하며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작중인물의 동일성이 파악되며, 이를 통해 소설의 궁극의 목표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대명제의 탐구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동일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이론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그 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동일성은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설 이론으로 매우 매력적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결국 자기 동일성을 찾아 영원한 탐색을 해 가는 존재이며, 이 과정을 언어를 통해 소설이란 양식으로 나타낸 것이 문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설화에서의 〈탐색담〉이 지니는 의미를 유리왕 설화를 재해석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소설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역사철학적 상황이 어떻게 문제적 개인을 만들었으며, 부루주아 사회에서 소설이 탄생되어 그것이 지향하는 점이 상실된 선형적 고향이었음을 루카치의 미학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비극적 세계관을 지닌 주인공이 〈숨은 신〉을 찾아 모순된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역정이 바로 소설의 내재적 형식임을 골드만의 미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 본질의 탐색에 해당하며, 동시에 동일성을 찾아 길을 떠나는 인간 역정에 다름 아닌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통시적 관계와 공시적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엮어 짜 가는 과정이 결국은 동일성의 획득에 다름 아닌 것도 탐색되었다. 이것은 탐색담의 또다른 분석이 될 것이다.

끝으로 수용 미학적 입장에서의 소설 인물 및 내용의 독서 현상을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이미지를 중시하였는데, 이때 상상의 문제와 기억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상상과 기억을 통한 동일성의 재구는 그것이 문학적 실체로까지 제고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고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인식 영역을 더 확대하여 동일성의 문제로 소설이론을 포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 소설을 보다 정치하고 올바르게 분석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소론을 끝내기로 한다.

## 참고 문헌

- 곽광수 김현, 1981, 『바슐라르연구』, 민음사
- 김남권, 1985, 『정지용 시에 나타난 동일성 지향의 연구』, 강릉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욱 외 편역, 1983, 『문학과 신화』, 대방출판사
- 김병욱 편, 1983,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 김진국, 1980, 『문학현상학의 이론과 실제』, 명진사
- 박이문 외, 1992, 『현상학』, 고려원
- 서석준, 1992,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시학사
- 신현숙, 1992, 『희곡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 안영찬, 1992,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니시에이션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보, 1980, 『동국이상국집』, 민족문화추진회
- 이승훈, 1983, 『문학과 시간』, 이우출판사
- 이형식 외, 1983, 『현대문학비평의 방법론』, 서울대출판부
- 전광용 외, 1984,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 조남현, 1984, 『소설원론』, 고려원
- 최현무 외, 1988,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 한승옥, 1984,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 Beardsley, Monroe C. 1988 『미학사』, 이성훈 · 안원현 역, 이론과 실천
- Cassirer, Ernst, 1983,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전망사
- Forster, E. M. 1984, 『소설의 이해』, 김성호 역, 문예출판사
- Girard, Ren , 1977,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 Goldmann, Lucien, 1988, 『숨은 신』, 송기형 · 정과리 역, 연구사
- Lucács, Georg, 1985,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 Magliola, Robert R. 1988, 『현상학과 문학』,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 mendilow, A. A. 1983, 『시간과 소설』,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 Meyerhoff, Hans, 1987, 『문학과 시간현상학』, 김준오 역, 삼영사  
Poulet, Georges, 1982, 『현대비평의 이론』, 홍성사  
Rimmon-Kennan, Shlomith, 1985,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 문학과 지성사

## Abstract

### An essay on analytic methodology in Korean modern novel - in stress on the 'identity'

Han, Seung-Ok • Hya, Myung-Suk

In this thesis, we tried to systematize the theory of modern Korean novel through careful examination on the conception of identity in novel. Through this examination, it became clear that the identity is very useful to set up the theory of novel, although the identity is philosophical meaning, it provides the key to the original question of man. And it also became clear that man is a kind of being, who quest for self-identity forever, that the literature is a presentation of this procedure in language through novel.

In this paper, first, we built up the foundation in the meaning of <quest stor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n the tale of King Uri'. Second, in the angle of sociology of novel, we certified how the history-philosophical situation make a problematic individual: that the inclination of novel, arised in the society of bourgeois, is the lost priori home through Lukács' aesthetics. Furthermore, it could be certified that main character's journey of contradictory life in pain, in which he is looking for <hidden God> with the tragic view of the world, is inherent form of novel through Goldmann's aesthetics. we also certified that these all are the kind of quest for the essence of human being and the journey to look for the identity concurrent.

In the angle of structuralism, it was certified that the process of compile in diachronic and synchronic relation through the time and space is the possession of identity eventually. This can be another analysis of

quest story.

Finally, in the angle of reception aesthetics, we examined the phenomena of reading in characters and contents in the case of phenomenology. Especially, we stressed on the 'image' , in that the topic of imagination and recollection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we believe that this paper can be useful study in the fact that reformation of identity, through these imagination and recollection, is regarded to literary reality.